

인플루엔자 유행 주의

인플루엔자란?

흔히 독감으로 불리며, 주로 기침, 재채기 등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

감염 되면 1~4일(평균 2일)후에 증상이 나타나며, 38도 이상 고열, 기침, 인후통, 두통, 근육통, 피로감, 쇠약감, 식욕부진 등 전신 증상을 보임



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란?

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을 알리기 위한 발령 체계

23-24절기('23.9월~24.8월) 유행기준: 외래 환자 1천명당 6.5명

23-24절기는 9월 15일(금) 0시에 유행주의보 발령

유행주의보 발령시

고위험 군은 검사 없이도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요양급여 적용

고위험군

소아, 임신부, 만 65세 이상 어르신, 면역저하자, 대사장애 등 기저질환자



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

올바른 손씻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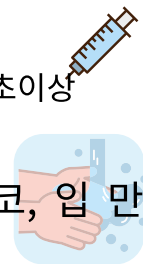
-흐르는 물에서 비누로 30초이상

기침 예절 지키기

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
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진료받기

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



자료출처: 질병관리23-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안내

빈대 출현시 대응방법

1. 빈대에 물렸다면,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.

- 사람마다 반응 시간(잠복기 최대 10일)이 다를 수 있다.

2.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한다.

- (직접확인)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, 소파, 책장,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본다.

- (흔적)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다.

- (냄새)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에서 찾는다.

3.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.

- (물리적 방제)

①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한다.

②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, 매트리스, 소파,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,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한다.

③ 오염된 직물(의류, 커튼, 침대커버 등)은 건조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.

- (화학적 방제)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한다. (매트리스,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 제외)

*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,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

- 빈대에 오염된 장소가 공동·숙박시설일 경우, 동시에 방제한다.

- 방제 후, 빈대가 발견되었던 곳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, 빈대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한다.

* 서식처 주변 및 깊숙한 곳에 있어, 방제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수 있음

* 알이 부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, 7~14일 후에 서식처 주변을 재확인해야 함

4.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,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.

- 만약 폐기할 경우, 반드시 방제 후 폐기*하여야 한다.

* 방제 없이 폐기 시,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

5.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, 여행용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.

*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,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

